



보도자료

2021년 10월 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즉시 보도 가능)

문의

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최기성 실장(1824), 이현의 선임(1894)
홍보담당 김로운 사원(02-3660-1884)

서울모터쇼, '서울모빌리티쇼'로 새롭게 태어난다

- ◆ 서울모터쇼조직위,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내연기관차 상징 명칭 '모터'를 포기하기로
- ◆ 대신 전기동력, 자율주행, Mass 등 신산업 지향 차원에서 '모빌리티' 명칭을 도입키로
- ◆ 서울모빌리티쇼는 11월 25일(목)부터 12월 5일(일)까지 총 11일간 킨텍스에서 개최

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산업전시회인 '서울모터쇼'가 전동화와 자율주행 확산 추세에 발맞춰 미래 이동 수단 중심의 '서울모빌리티쇼'로 새롭게 태어난다.

서울모터쇼조직위 *(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, 이하 조직위)는 10월 8일(금)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, 서울모터쇼 명칭을 '서울모빌리티쇼'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.

* 한국자동차산업협회(KAMA), 한국수입자동차협회(KAIDA),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(KAICA)로 구성

이 날 회의에서 한편에선 탄소중립을 위한 전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, 동시에 자율주행, 도심항공모빌리티(UAM),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분야 확장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선 온라인 플랫폼사업 등의 MaaS(Mobility as a Service, 서비스로의 이동수단) 분야가 산업의 한 축을 형성해가고 있어 내연기관 중심의 그동안 서울모터쇼의 한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모빌리티쇼로 전환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.

조직위에 따르면, 이러한 트렌드는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, 예를 들어 지난 9월 폐막한 세계 4대 자동차전시회 '독일국제오토쇼(IAA)'가 행사 명칭이 미래 이동수단 중심의 'IAA 모빌리티 2021'로 변경된 바 있다.

조직위는 모빌리티 중심의 기술 종합전시회인 서울모빌리티쇼의 특징과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서울모빌리티쇼를 자율주행, IT융합기술, 인포테인먼트, 전기차, 수소차 등 첨단기술과 친환경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시콘텐츠를 꾸밀 계획이며,

▲서울모빌리티어워드, ▲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포럼 및 세미나, ▲모빌리티 시승행사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.

조직위 관계자는 “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와 전 세계적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사 참가를 결정해준 참가업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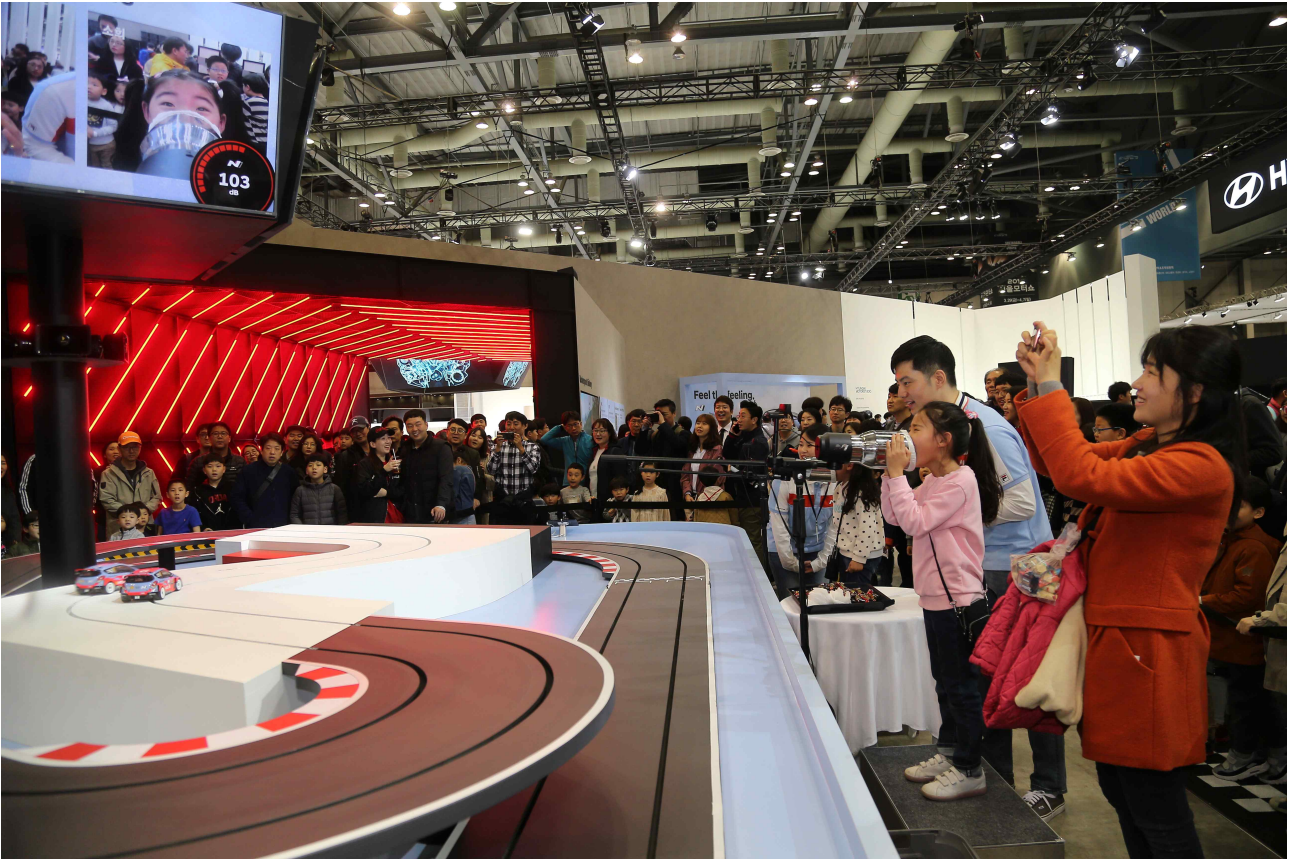
“자동차산업의 무게 중심이 자율주행,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로 옮겨가는 한편, Mass 등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이 늘어가고 로봇,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만큼, 서울모빌리티쇼가 국내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전문 기술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11월 25일(목)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12월 5일(일)까지 총 11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. 서울모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(OICA)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 모터쇼로, 1995년 첫 회를 시작으로 격년 단위로 매 홀수 해에 개최됐다. (끝)

* 사진 : 2019서울모터쇼 행사 사진







* 사진제공: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